

황남대총 출토직물 연구

- 現 경주문화재 연구소 소장직물을 중심으로 -

장 현 주 · 권 영 숙⁺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Fabrics Excavated from Hwangnamdaechong Tomb

- Focused on the Fabrics Currently Housed in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Hyun-Joo Jang · Young-Suk Kwo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Pusa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2. 2. 21, 심사(수정)일: 2012. 5. 18, 게재확정일: 2012. 5. 23)

ABSTRACT

Hwangnamdaechong Tomb (The 98th tomb in Hwangnam-dong), one of the royal tombs located around the area of royal tomb of King Michu in Hwangnam-dong, Gyeongju, is currently designated as Historic Site No. 40. It is assumed that Hwangnamdaechong Tomb is a royal tomb of the early 5th centur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bric relics excavated from Hwangdamdawchong Tomb and currently housed in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types of fabrics excavated from Hwangdamdawchong Tomb include plain silk, warp-faced compound woven silk, and hemp cloth. Most of these fabrics are adhered to metal products that became rusty. Plain silk found in Hwangnamdaechong Tomb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by its weaving method. Geum excavated from Hwangnamdaechong Tomb is typical Gyeong Geum that uses colored warp for its base and pattern. It is plain Gyeong Geum that the binding weft and warp is plain woven. Although there are a lot of Gyeong Geum fabrics whose colors are hard to define due to yellowing after long years, there are still many fabrics whose color such as purple, red, blue, and green can be identified. As literatures have shown that p cloth as well as silk were frequently woven during Silla dynasty, tremendous amount of hemp cloth was excavated. Most of the hemp cloth has S-twist in the warp and 8-12 seung degree of delicacy.

Key words: fabric relics excavated from Hwangdamdawchong tomb(황남대총 출토직물),
Gyeong Geum(경금직물), hemp cloth(마직물), plain silk (평견직물)

I. 서언

황남대총(황남동 제98호 고분)은 현재 사적 제 40호로 지정된 경주 황남동 미추왕릉지구 고분으로 이미 1973년 7월~1976년 10월에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 의해 발굴되어 57000여점의 유물에 대한 조사 보고서¹⁾가 발간된 바 있다.

5세기 전반의 무덤으로 그 형식은 두 무덤이 서로 붙은 돌무지덧널무덤²⁾이며 동서길이가 80m, 남북길이가 120m, 높이가 23~24m로 신라 최대의 무덤이다. 남분에서는 무기, 마구가 다량 출토되었으며 고분의 주인공이 대도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남자 즉 왕의 무덤으로 추측하며 북분에서는 장신구와 방추차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여자 즉 왕비의 무덤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하게 그 주인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5세기 전반기 古新羅 왕실의 무덤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에 대한 보고서는 이미 발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주 문화재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직물류 유물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 직물들은 주로 금속제품 중의 철제품에 부착되어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완전한 직물형태는 아니지만 실증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고직물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5C 한국출토직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시기 타출토직물의 선행연구³⁾결과와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출토직물의 내역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주 문화재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황남대총의 직물유물 44점 중에서 약품 등을 사용하여 보존처리가 이미 끝나서 직물의 특성을

고찰하기 불가능한 12점과 조직 및 성분확인 등 추후 연구가 필요한 6점을 제외한 나머지 26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견직물은 21점, 마직물은 5점이며 대부분의 섬유질은 鞍輪상에 부착된 직물 혹은 鐵釜上 정개하에 부착된 직물 등으로 금속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유물의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III. 황남대총 출토직물의 종류

직물에 대해서 섬유표면 관찰 및 재질감별, 섬유의 위화상태 등을 고찰하기 위해 광학 현미경 등을 이용하였으며 실체현미경에 의한 육안관찰과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직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1. 직물

1) 견직물

신라에서는 이미 시조 赫居世居西干 17년(B.C 41년)에 왕과 왕비가 6부를 순행하며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였으며⁵⁾ 婆娑尼師今 3년(A.D 82년)에는 농사와 양잠을 장려한 기록⁶⁾으로 보아 건국 초기부터 견직업의 장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견직물은 국외로 수출하기도 하였다. 즉 訖解尼師今 20년(329년)에는 1460필의 견직물을 일본에 수출하였으며⁷⁾ 眞德王 4년(650년)에는 왕이 錦에 五言詩 太平頌을 써서 당의 황제에게 헌납하였다⁸⁾는 등의 기록이 있다. 이렇게 건국 초기부터 견직물은 자가수요, 조세, 공물용, 화폐, 그리고 수출품 등의 다양한 용도로 생산되고 있었다.

본 황남대총의 직물유물 가운데서도 견직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錦직물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물론 이 시기 왕실의 무덤으로 추정되므로 상류층의 의료인 견직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표 1> 황남대총 출토유물의 내역(現 경주 문화재 연구소 소장품)

재질	직물수	출토상황(용도)
견	21점	부장품 수장부내 철부상 정개하, 섬유질 목질, 안교장식, 영락장식부착직물 등
마	5점	부곽 남서편 안륜상 섬유질, 섬유질 목질, 금동리 부착직물 등

그 중에서도 錦은 그 시대 가장 귀중한 섬유제품으로 현상 혹은 하사품으로 사용했던 직물로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견직물은 모두 21점이며 평견직물 8점, 중직물 13점으로 중직물의 비중이 더 많았다.

(1) 평견직물

평견직물은 모두 8점으로 대부분이 매우 섬세하게 제작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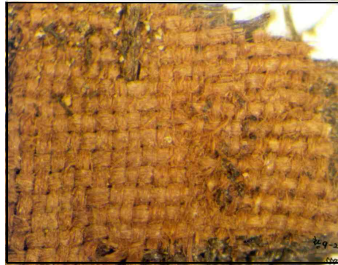
평견직물은 대부분이 매우 섬세하게 제작되었으며 대체로 식서방향의 구분이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조

<표 2> 평견직물의 특성 분석결과

유물 번호		3-1-1	3-4-1	5	9-2-1
직물명		평견	평견	평견	평견
조 직	바탕	평직	평직	평직	평직
	무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실굵기 (mm)	경사	0.067	0.09	0.168	0.208
	위사	0.086	0.15	0.136	0.186
굵기비 ($\frac{\text{위사굵기}}{\text{경사굵기}}$)		1.28	1.66	0.809	0.89
실번수 (D)	경사	28.46	51.35	178.91	274.24
	위사	46.88	142.63	117.25	219.30
실꼬임	경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밀도(가닥 수/inch)	경사	177.8	127	132.1	77.2
	위사	152.4	114.3	81.3	63.5
밀도비 ($\frac{\text{경사밀도}}{\text{위사밀도}}$)		1.17	1.11	1.62	1.22
직물의 C·F		27.32	31.23	36.32	30.46
두께(무압축시, mm)		0.153	0.24	0.304	0.394
문 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색		황갈색	흑갈색	흑갈색	흑녹색
크 기 (cm)		2×0.7	2×2	2×2	1.5×2.7
유물번호		9-2-3	9-4-2	9-4-3	14-1
직물명		평견	평견	평견	평견
조 직	바탕	평직	평직	평직	평직
	무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실굵기 (mm)	경사	0.130	0.154	0.130	0.075
	위사	0.135	0.217	0.135	0.104
굵기비 ($\frac{\text{위사굵기}}{\text{경사굵기}}$)		1.04	1.41	1.04	1.39
실번수 (D)	경사	107.13	150.32	107.13	35.65
	위사	115.53	298.50	115.53	68.56
실꼬임	경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밀도(가닥 수/inch)	경사	132.1	88.9	132.1	152.4
	위사	121.9	76.2	121.9	114.3
밀도비 ($\frac{\text{경사밀도}}{\text{위사밀도}}$)		1.08	1.17	1.08	1.33
직물의 C·F		24.11	33.0	24.11	25.47
두께(무압축시, mm)		0.265	0.371	0.265	0.158
문 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색		적황색	흑녹색	적황색	흑갈색
크 기 (cm)		0.5×0.5	1.5×0.5	4×1.3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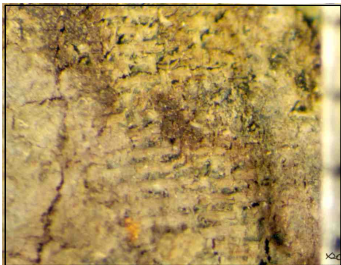
〈그림 1〉 유물번호 5,
평견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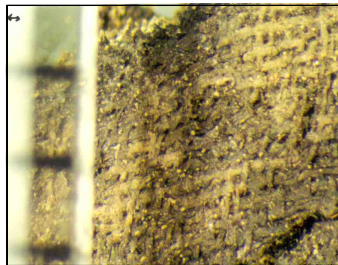
〈그림 2〉 유물번호 9-2-3,
평견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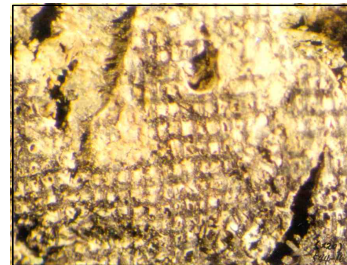
〈그림 3〉 유물번호 9-4-3,
평견 확대사진



〈그림 4〉 유물번호 3-1-1,
평견 확대사진



〈그림 5〉 유물번호 3-4-1,
평견 확대사진



〈그림 6〉 유물번호 14-1,
평견 확대사진

각의 상태에 불과했으므로 식서의 판별이 곤란하였다. 경사는 제직 중에 장력이 걸리므로 경사방향으로 가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위사는 그것에 비해서 비교적 굵은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경사방향의 밀도가 많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가늘고 밀도가 많은 쪽을 경사방향으로 했으며 굵기와 밀도 중에서는 밀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위사 방향을 판별하였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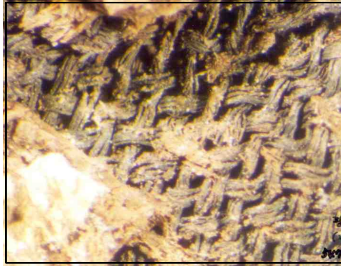
황남대총의 평견직물은 제직특성상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사와 위사의 굵기가 거의 같으며 경위사가 거의 90도의 각도를 반듯하게 유지한 채 밀도 또한 치밀하게 제직된 유형이다. 경사의 굵기는 0.130~0.168mm, 위사의 굵기는 0.135~0.136mm, 경위사 밀도는 132.1X81.3~121.9/inch범위이다(그림 1~3).

두 번째 유형은 경, 위사가 매우 가늘고 실과 실 사이 공간이 많아 투공율이 높은 유형이다. 특히 경사굵기는 0.067~0.09mm로 매우 가늘며 경, 위사의

밀도비도 1.11~1.33으로 경, 위사의 밀도가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그림 4-6).

세 번째 유형은 자수의 바탕 천으로 사용된 평직 견으로 경, 위사에 꼬임 없는 2-3합의 실을 사용해 제직한 것으로 실의 가닥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나 경, 위사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역시 방형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것은 투공율이 높아 자수의 바탕천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 유형보다는 비교적 두꺼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사의 굵기는 0.154~0.208mm, 위사의 굵기는 0.186~0.217mm, 경위사의 밀도는 77.2~88.9X63.5~76.2/inch이다(그림 7~8).

유물은 대체로 작은 조각의 상태로 금속표면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실제의 포폭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라본기 문무왕 5년(665년)에 “絹布 舊一尋爲一匹 改二長七步 廣二尺爲匹”이라 하였는데 미터척으로 환산하면 한 폭이 48.24cm이다.¹⁰⁾ 그리고 고대 중국 견직물의 포폭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



〈그림 7〉 유물번호 9-2-1,
평건 확대사진



〈그림 8〉 유물번호 9-4-2,
평건 확대사진

60cm범위이다. 그러므로 이 당시 생산된 우리나라 및 중국에서 생산된 견직물의 포폭은 대체로 50~60cm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황남대총 평견직물의 포폭을 50cm로 가정하여 승수를 계산하면 31.3~43.8升到에 해당되는 최고의 극세직임을 알 수 있다. 왕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출토 직물로서 이 당시 최고품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금직물

금은 경사 혹은 위사에 여러 가지 색의 경사를 사용하여 직물의 문양을 표현한 중조직직물이다. 錦 중에서도 가장 초기의 기본적인 것이 經錦직물이며 경금은 한 가지 색의 위사와 여러 가지 색의 경사가 한조가 되어 바탕과 문양조직을 평직 혹은 능직으로 제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무늬가 희끗희끗한 실로 제직한 직물과 동일하여 문양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본조직용의 위사[母緯]와 1올씩 교대로

〈표 3〉 중국 고대 견직물 1匹의 포폭 및 길이(평균치)

시대	규준척	포폭	길이	출처	
戰國	0.229m	2척2촌	40척	中國古代 絹織物史 研究 上, 佐藤武敏, 風間書房, 昭和 52년, p. 337.	
		0.504m	9.16m		
前漢	0.233m	2척2촌	40척		
		0.513m	9.32m		
後漢	0.234m	2척2촌	40척		
		0.515m	9.36m		
六朝	晉	0.242m	2척2촌		40척
		0.532m	9.68m		
	宋	0.247m	2척2촌		40척
		0.543m	9.88m		
	梁	0.249m	2척2촌	40척	
		0.548m	9.96m		
唐	양세법시행이전	0.295m	1척8촌	40척	
		0.531m	11.792m		
	양세법시행 (780년)이후	0.295m	1척9촌	39척	
		0.560m	11.497m		
		0.295m	1척9촌	40척	
	元和年間	0.295m	0.560m	11.792m	
宋	0.319m	2척5촌	40척	中國古代 絹織物史 研究 下, 佐藤武敏, 風間書房, 昭和 52년, p. 354.	
		0.639m	12.74m		
		2척5촌	42척		
		0.639m	13.377m		

별도의 위사[陰緯]를 통과시켜 여러 색의 경사 중에서 각 올마다 필요한 한가지색을 걸고로 드러내고 다른 색사는 밑으로 눌러 바탕과 문양을 제직한다. 이와 같이 2종류의 역할이 다른 위사를 사용하므로 複樣조직의 經錦이라고 부른다.¹¹⁾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각종 錦織물이 제직되어 사용되었으며 중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三國志』 부여조에는 외국에 나갈 때 錦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에서는 五色錦, 雲布錦, 朝霞錦, 魚牙錦 등의 錦織물을 제직하여 수출하였으며 『日本書紀』에는 463년에 백제의 금부 안정나가 일본에 가서 韓錦을 제직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唐書』에는 백제의 왕이 靑錦袴를 입었던 기록도 있다. 그리고 신라 진덕여왕은 즉위년(647년)에 직접 錦織물에 오언시 太平歌를 써서 唐의 황제에게 보냈으며 통일신라 흥덕왕 복식금제조에는 錦織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 이 당시 錦織물의 제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3세기 고려시대에는 금직물의 제직 기술이 한층 더 발달하여 직물에 금사 및 금박 기법을 가하는 직금류의 직물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은

이미 고려시대의 각종 복장유물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다.¹²⁾

본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經錦織물의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황남대총 출토 중조직 직물은 모두 경금직물이다. 본래의 색상은 아니지만 경사의 색상이 몇 가지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탕과 문양의 형태는 직물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판별할 수 없지만 바탕과 문양을 모두 경사의 색사로 표현한 전형적인 경금직물이다.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색상은 변색되었지만 경사의 색상이 몇 가지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과 다색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평조직 경금조직은 천마총에서 출토된 경금직물과 같은 유형이다.¹³⁾ 이 유형은 조직위사와 음위사로 구별할 수 있는 2종류의 위사가 있으며 조직위사와 경사가 평직으로 조직된 것으로 경두독직의 외관을 나타낸다. 특히 <그림 9>의 직물은 조직 확대사진에서 조직위사, 음위사로 구별할 수 있는 2종류의 위사를 발견할 수 있다. 조직위사가 평직으로 조직된 평조직 경금으로 녹색, 황색의 두 가지 색의 경사로

<표 4> 중조직직물의 특성 분석결과

유물 번호		2-2	2-5-2	9-1-1	9-1-2
직물명		경금	경금	경금	경금
조직	바탕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무늬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실굵기 (mm)	경사	0.168	0.167	0.142	0.283
	위사	0.2	0.117	0.188	0.167
굵기비 (위사굵기 / 경사굵기)		1.19	0.70	1.32	0.590
실번수 (D)	경사	178.91	176.79	127.82	507.68
	위사	253.56	86.77	224.02	176.79
실꼬임	경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밀도(가닥 수/inch)	경사	140.2	165.1	127	127
	위사	83	101.6	76.2	88.9
밀도비 (경사밀도 / 위사밀도)		1.69	1.63	1.67	1.43
직물의 C·F		43.84	23.32	35.34	55.42
두께(무압측시, mm)		0.368	0.284	0.33	0.45
문양		확인불가	화문 등	확인불가	확인불가
색		녹, 황, 갈색	적, 청, 황, 갈, 흑갈색	청, 적색	적, 녹색
크기 (cm)		2×2	1×3	1.7×1.8	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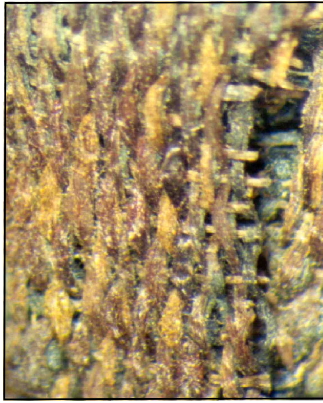
항남대총 출토직물 연구

유물 번호		9-3	9-4-1	9-5	9-6-1	
직물명		경금	경금	경금	경금	
조 직	바탕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무늬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실 굵기 (mm)	경사	0.083	0.208	0.208	0.181	
	위사	0.144	0.167	0.209	0.163	
굵기비 (위사굵기 / 경사굵기)		1.735	0.803	1.00	0.900	
실 번수 (D)	경사	43.67	274.24	274.24	207.66	
	위사	131.45	176.79	276.89	168.42	
실 꼬임	경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밀도(가닥 수/inch)	경사	152.4	177.8	127	190.5	
	위사	114.3	121.9	73.7	139.7	
밀도비 (경사밀도 / 위사밀도)		1.33	1.46	1.72	1.36	
직물의 C·F		31.79	62.65	45.69	62.51	
두께(무압측시, mm)		0.227	0.375	0.417	0.344	
문 양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색		황변	황변	적, 청색	황변	
크 기 (cm)		3×5	1.8×3	6×1.4	0.8×0.6	
유물 번호		12-1-1	12-1-3	12-2	12-3	12-4
직물명		경금	경금	경금	경금	경금
조 직	바탕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무늬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변화평직
실 굵기 (mm)	경사	0.204	0.167	0.15	0.192	0.159
	위사	0.125	0.117	0.192	0.173	0.123
굵기비 (위사굵기 / 경사굵기)		0.613	0.700	1.28	0.901	0.774
실 번수 (D)	경사	263.77	176.79	142.63	233.68	160.26
	위사	99.05	86.77	233.68	189.72	95.90
실 꼬임	경사	없음	없음	S	S	없음
	위사	없음	없음	S	없음	없음
밀도(가닥 수/inch)	경사	165.1	152.4	152.4	127	152.4
	위사	114.3	114.3	101.6	101.6	71.1
밀도비 (경사밀도 / 위사밀도)		1.44	1.33	1.5	1.25	2.14
직물의 C·F		52.36	42.26	46.28	45.83	19.30
두께(무압측시, mm)		0.329	0.284	0.342	0.365	0.282
문 양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색		황변	황변	황변	황변	적, 청색
크 기 (cm)		3×2	2×1	2×2	0.9×1.1	0.3×0.5

제작한 복양 평조직 직물이다. 위사의 밀도는 조직위사와 음위사를 모두 합한 것이다. 경사의 굵기는 0.142~0.283mm, 위사의 굵기는 0.117~0.209mm 범위이며 경위사의 밀도는 127~154X71.1~101.6/inch 범위이다.

〈사진 9〉~〈사진 14〉는 모두 적색, 청색, 황색, 갈

색 등의 경사를 구별할 수 있었으며 바탕 무늬 모두 변화평직으로 제작한 평조직 경금직물이다. 4~5색의 경사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經緯의 제작기법 상 2~3색 이상의 경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약 1500년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동일한 색상이라 할지라도 변색되는 과정에서 다소



〈그림 9〉 유물번호 2-2,
경금 확대사진



〈그림 10〉 유물번호 2-5-2,
경금 확대사진



〈그림 11〉 유물번호 12-4,
경금 확대사진



〈그림 12〉 유물번호 9-1-1,
경금 확대사진



〈그림 13〉 유물번호 9-1-2,
경금 확대사진



〈그림 14〉 유물번호 9-5,
경금 확대사진

차이가 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삼국사기』색복조 범흥왕대 4색 공복제도를 보면 진골이상은 자의, 6두품은 비의, 5두품은 청의, 4두품은 황의로 제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신분은 자색, 비색의 적색계열 색상을 의복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색은 삼국 모두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자의 의복에 사용했다고 하므로 왕을 비롯한 상류층 의복에 주로 사용한 색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에서 청색은 적색계 다음으로 높은 계층에서 사용했던 색상으로 자색, 비색과 같은 적색계와 함께 상류층의 직물에 많이 사용했던 색상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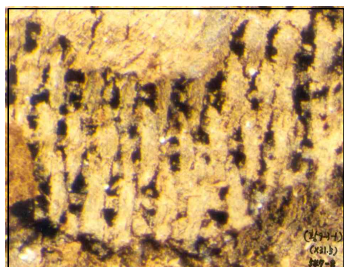
그리고 『삼국사기』 권 33, 잡지거마에 말머리장식에 삼실을 사용하되 색깔은 붉은색과 진한 붉은 색, 푸른 풀색과 짙은 풀색으로 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

으로 보아 적색과 청색을 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실을 염색하는 선염기술이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염기술의 발달은 황남대총 출토직물 중 금직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오랜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경사의 색상이 황변한 상태로 되어 색사의 구분을 알아볼 수 없는 경금직물도 있다(그림 15-20). 경사의 굵기는 0.083~0.208mm, 위사의 굵기는 0.117~0.192mm범위이며 경위사의 밀도는 127~190.5X101.6~139.7/inch범위이다.

2) 마직물

신라에서는 일찍이 견직물과 함께 마직물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儒理尼師今 9년에는 六部



<그림 15> 유물번호 9-3-1, 경금 확대사진



<그림 16> 유물번호 9-4-1, 경금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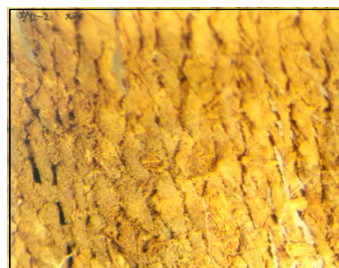
<그림 17> 유물번호 9-6-1, 경금 확대사진



<그림 18> 유물번호 12-1-1, 경금 확대사진



<그림 19> 유물번호 12-1-3, 경금 확대사진



<그림 20> 유물번호 12-2, 경금 확대사진

의 여인이 편을 나누어 績麻하는 길쌈내기를 하였다. 즉 음력 7월 16일부터 길쌈경기를 시작하여 8월 15일에는 어느 쪽이 길쌈을 많이 했는가를 판정한 후 진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이긴 편을 대접하며 여러 가지 노래와 춤 등을 즐기는 가배 풍습이 생겨났다.¹⁴⁾ 이러한 행사는 신라의 귀족계층에서 우수한 직조품 등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라에서 마직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¹⁵⁾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직물은 자가 수요 및 조세, 공물용, 그

리고 화폐의 역할까지 겸하면서 널리 사용되었다.

『삼국사기』 권 33에 나타난 흥덕왕 복식금제조의 기록을 보면 각 계급에 따라 布의 승수를 제한하고 있다. 진골여자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28승~12승까지로 구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섬세한 정도가 다양한 마포직물이 생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5).

(1) 대마직물

경주 문화재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황남대총의 마직물은 5점으로 그 특성분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5> 삼국사기 기록에 나타난 마직물의 升數제한

계급	승수	계급	승수
진골대등	26승이하	진골여	28승이하
6두품	18승이하	6두품여	25승이하
5두품	15승이하	5두품여	20승이하
4두품	13승이하	4두품여	18승이하
평민	12승이하	평민여	15승이하

〈표 6〉 마직물의 특성 분석결과

유물 번호		1-2	1-3	1-6	4	6
직물명		대마	대마	대마	대마	대마
조 직	바탕	평직	평직	평직	평직	평직
	무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실 굵기 (mm)	경사	0.52	0.633	0.533	0.592	0.642
	위사	0.67	0.442	0.77	0.908	0.525
굵기비 (위사굵기 / 경사굵기)		1.29	0.70	1.44	1.53	0.818
실꼬임	경사	S	S	S	S	S
	위사	S	S	S	S	S
밀도(가닥수/inch)	경사	50.8	37.03	35.2	33.8	35.6
	위사	30.5	30.48	25.4	21.3	27.9
밀도비 (경사밀도 / 위사밀도)		1.67	1.21	1.39	1.59	1.28
두께(무압축시, mm)		1.19	1.075	1.303	1.083	1.083
문 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색		암갈색	암갈색	암갈색	소색	소색
크 기 (cm)		6×8	3.5×7.5	-	-	0.8×1.3
포 폭 (cm)		-	-	-	-	-
승수(升: 포폭을 33cm로 가정했을때)		12.5	9.1	8.7	8.3	8.7



〈그림 21〉 유물번호 1-2, 대마확대사진



〈그림 22〉 유물번호 1-3, 대마확대사진



〈그림 23〉 유물번호 1-6, 대마확대사진



〈그림 24〉 유물번호 4, 대마확대사진



〈그림 25〉 유물번호 6, 대마확대사진

황남대총 마직물의 경사 굵기는 대개 0.52~0.65 mm범위에 속하며 경위사의 밀도는 30~50X25~35/inch 범위이며 경사에는 분명한 S꼬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그림 21~25). 당시 마직물의 정확한 포폭은 알 수 없지만 약 33cm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5~8승 정도로임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비하면 매우 성근 특징이 있다.

2. 자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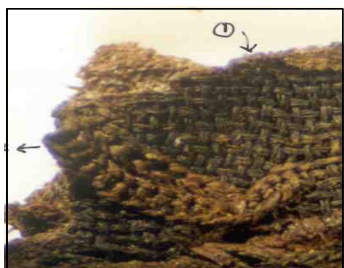
황남대총 출토유물 중에는 사슬수(chain stitch)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사슬수는 자수에서 고리를 지어 사슬모양으로 수놓는 기법으로 윤곽선을 굵게 하거나 공간을 메울 때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유물에서는 모두 윤곽선을 굵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림 26-27>은 평직의 바탕천 위에 두 줄의 사슬수를 함으로써 굵은 선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그림 28-29>는 경화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한 줄의 사슬수 형태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삼국사기』권 33 잡지복색에 보면 진골대등은 겹옷과 등거리, 바지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라직을 금하며 여자의 겹옷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라직을 금한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진골이상의 계급에서는 선염기법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한 견사를 사용해 자수를 놓음으로써 문양을 표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황남대총 출토직물에는 평견직물과 금직물, 마직물, 그리고 자수 등의 종류가 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평견직물은 경위사가 평직으로 제작된 것으로 경사와 위사의 굵기가 거의 같으며 밀도 또한 치밀하게 직조된 유형, 경위사가 매우 가늘고 실과 실사이 공간이 많아 투공율이 높은 유형, 경위사에 꼬임 없는 2~3합의 실을 사용해 경, 위사가 교차하는 지



<그림 26> 유물번호 9-2, 사슬수 사진



<그림 27> 유물번호 9-2, 사슬수 확대사진



<그림 28> 유물번호 12-1-5, 사슬수 사진



<그림 29> 유물번호 12-1-5, 사슬수 확대사진

점에는 방향의 공간이 형성되도록 제작한 유형 등이 있었다. 평직물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기본조직으로 고대 평직직물에는 견, 주, 초, 사, 곡, 검, 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것은 정확한 과학적인 수치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실의 종류, 굵기, 싱글기, 두께, 꼬임 등의 특성에 따른 문헌적인 분류이므로 현재 출토직물을 고대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직물명으로 분류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중국, 일본에서 분류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의 고대 평직직물에 밀도, 투공율 등의 정확한 과학적 수치에 의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따른 분류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금직물은 모두 조직위사와 경사가 평직으로 조직된 평조직의 경금직물로서 황남대총 출토직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왕실의 유물임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바탕과 문양의 형태를 판별할 수 없지만 바탕과 문양을 모두 경사의 색사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과 직물 전체가 황변한 상태라 경사의 색사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조직판별이 가능한 유형이 있었다. 견직물의 색상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색, 퇴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1500여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황남대총 출토 경금직물 중 원래의 색상에서는 다소 변색, 퇴색되었지만 적색이 다수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청색 혹은 녹색도 다수 볼 수 있었다. 특히 적색은 삼국 모두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자의 의복에 사용했던 색상으로 대부분의 금직물에 사용되었다. 직물의 크기가 대부분 1~5cm 정도로 매우 작은 파편이라 직물의 문양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비교적 작은 문양을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신라에서는 일찍이 견직물과 함께 마직물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황남대총 출토 마직물의 밀도는 30~50×25~35/inch 범위인데 마직물의 포폭을 33cm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5~8승 정도로 매우 성근 특징이 있다.

4. 선염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슬수를 사용한 자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사슬수는 자수에서 고리를 지어 사슬모양으로 수놓는 기법으로 출토유

물에서는 윤곽선을 굵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5. 본 유물은 신라에 다양한 직물문화가 발달했으며 5세기 전반기 국가간 교류가 활발했음을 또한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동시기 타 출토직물의 선행연구결과와도 유사한 점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실증자료이다. 또 본 연구는 황남대총 출토직물 중 경주문화재 연구소 소장품만을 조사한 결과이며 조사한 유물은 대부분 경화된 직물 덩어리 상태이었으므로 유물의 손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 표면의 직물만은 고찰한 결과이다. 따라서 출토직물의 분리, 해체과정을 거쳐 내부의 직물을 조사하게 된다면 더 다양한 직물 등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1)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1994), *황남대총 남분발굴조사보고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1995), *황남대총 북분발굴조사보고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2)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양식. 목곽적석총, 적석목곽분, 적석봉토분이라고도 한다. 지상 또는 지하에 상자 모양의 덧널(목곽)을 놓은 다음 그 위에 냇돌을 쌓고 다시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이다. 덧널위치에 따라 지상식, 반지하식, 지하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은 지하식이지만 황남대총은 지상식이다. 4세기 전반~6세기 전반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6세기 전반에 소멸되었다.
- 3) 조효숙, 이은진, 전현실 (2007 a), 백제 무령왕릉 출토 직물 연구, *복식*, 57(8), pp. 37-47.
조효숙, 이은진, 전현실 (2007 b), 백제 무령왕릉 출토 금동리 수착직물 연구, *복식*, 57(1), pp. 93-104.
박윤미, 최재현 (2009), 고령 지산동 제73호분 출토직물의 특성, *복식*, 59(6), pp. 118-125.
박윤미 (2003), 가야와 고분시대의 마직물의 비교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보*, 4, pp. 99-126.
박윤미 (2008), 백제 5세기 수촌리 고분군 직물의 특성, *복식*, 58(10), pp. 164-172.
권영숙 외 (2000), 신라시대 천마총 출토직물의 유형과 특성 -현 경주박물관 소장직물을 중심으로-, *복식*, 50(7), pp. 129-139.
- 4) 各山山洋 (1991), *染織 a, 藤ノ木古墳の出土織物⑧, 經錦の出土*, p. 73.
일본에서는 經錦이 금속에 종속되어 부착하고 있다고 하며 이 주종관계는 금속이 섬유에 남아있는 정도를 도와주는 것으로 견 섬유 그 자체는 자연 상태로 남지만 녹슴에 따라 남을 가능성은 적다고 한다.
- 5)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赫居世居西干 17년.
- 6)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3년.
- 7) *日本書紀*, 권 11 人德天皇 17년.
- 8) *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眞德王 5년.

- 9) 布目順郎 (1988), *絹と布の考古學*, 東京: 雄山閣, pp. 235-236.
일본의 太田英藏氏는 고대 평건직물의 밀도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①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①經地合(横畝地合):경사밀도 > 위사밀도, 經畝조직 ②平地合:경사밀도 = 위사밀도, ③綴地合:경사밀도 < 위사밀도, 緯畝조직.
- 10) 김동욱 (1979),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pp. 102-103.
- 11) 松本包夫 (1982), *正倉院ぎれ*, 東京: 學生社, pp. 155-156.
太田英藏・佐佐木信三郎・西村兵部 (1963), *正倉院の錦*, 京都: 川島織物研究所, p. 70.
松本包夫 (1990), *日本の美術 10(293) 正倉院の錦*, 東京: 志文堂, p. 31.
- 12) 김미자, 조효숙 (1991),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조사연구 -1302년 아미타불 복장직물의 분석-, *1302年 阿彌陀佛服藏物の 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편, 온양: 온양민속박물관.
권영숙, 장현주 (2001), 文殊寺 腹藏織物에 관한 小考, *복식*, 51(6), pp. 101-115.
- 13) 권영숙 외, *op. cit.*, pp. 133-137에서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경금직물로 발표한 바 있다.
- 14)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儒理尼師今 9년.
- 15) 홍희유 (1989), *조선상업사 -고대, 중세-*, 서울: 백산자료원, p. 26.